



비문학 키워드

번호	키워드	설명
1	CT (Computed Tomography)	<p>▷ CT란 Computed Tomography의 약자로, 여기서 Tomography는 단층 사진 촬영을 의미한다. 따라서 CT를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도 부른다. CT의 원리는 인체의 골, 내장, 혈관 등 그 종류에 따라 'X선 흡수율'이 서로 차이가 다른 것을 이용한 것인데, X선을 비춘 후, 흡수율의 차이를 이용해 컴퓨터로 면도를 그리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CT는 뇌와 다양한 장기 기관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p> <p>▷ CT를 이용해 뇌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환자가 튜브 형태의 CT 촬영 기계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X선을 방출된다. 이때 X선은 신체의 한 단면에 대해 360도를 회전하며 특정 단면에 대한 X선의 흡수도 차이를 이용해 단면의 구조를 조사하게 된다. 이후 각 부위별 X선이 흡수된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분석하여, 이 영상을 재구성하면 뇌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p> <p>▷ CT의 경우 일반적인 X선 촬영에 비해 수십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방사능 피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피폭이 검사자의 암 발병률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아니나, 이는 CT의 단점으로 작용된다.</p>
2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p>▷ CT와 함께 뇌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촬영기법으로는 MRI가 존재한다. MRI는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아 피폭의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CT의 단점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는 기술이다.</p> <p>▷ MRI는 신체의 사진을 찍기 위해 자기장이 전자기파와 공명하는 현상을 이용한다. 공명현상이 무엇일까? 기초 어휘에 수록된 공명의 풀이를 읽고는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모든 물체는 자기장 안에 들어가면 자기적 성질인 자성을 갖게 된다. 자성을 갖게 된 물질에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가하면 전파의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이를 공명현상이라고 부른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소리굽쇠 실험에서는 진동수가 같은 소리굽쇠 두 개를 가까이 놓고 한쪽 소리굽쇠를 때린다. 이때 때리지 않은 다른 쪽 소리굽쇠도 울림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소리굽쇠의 공명현상이다.</p> <p>▷ 이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MRI의 원리를 이해해보자. 사람의 인체는 70%가 물이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는데, 평소 수소의 원자핵은 회전운동을 하고 있지만 자기장에 놓인다면 자기장 방향을 중심으로 세차운동을 하게된다. 세차운동이란 회전하고 있는 강체에 돌림힘이 작용할 때, 회전하는 물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상태의 원자핵이 자기장을 쏘다면 이와 공명하는 파동만 다시 방출하게 된다. 이렇게 방출하게 된 주파수를 모아 컴퓨터로 재구성하면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MRI가 영상을 얻는 과정이다.</p>
3	fMRI (functional MRI)	<p>▷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들은 전부 '뇌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촬영 기술이다. 지문에서는 뇌과학 연구를 위해 뇌의 활성을 연구하여 뇌의 활동을 보여 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음을 진술하였다. 뇌 촬영 기술의 발달에 따라 뇌의 활성을 살펴보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fMRI이다.</p> <p>▷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fMRI는 MRI에서 파생된 기술이다. 전자기장을 이용한다는 부분에서 둘은 공통점이 있지만 둘의 차이는 '헤모글로빈'에서 나온다. 헤모글로빈이란 순환계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여 산소 교환에 기여하는 단백질인데, 이때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과 산소와 결합하지 못한 헤모글로빈은 MRI를 통해 확인해 보았을 때 서로 다른 신호가 관측된다. 이는 곧 산소가 풍부한 뇌의 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활성화되어있는 뇌의 영역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 뇌의 어느 부분이 활동을 하는지, 좌뇌를 쓰는지 우뇌를 쓰는지, 뇌의 어느 부분으로 혈류가 더 많이 가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p>
4	PET	▷ PET 기술에 대해서는 선별된 연계 지문을 통해 학습해보자.

필수 어휘

①	고찰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함.
②	공명	특정 진동수(주파수)에서 큰 진폭으로 진동하여 진동계의 진폭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의 특정 진동수를 공명 진동수라고 하며, 공명 진동수에서는 작은 힘의 작용에도 큰 진폭 및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물체는 각각의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진동하며 이 때 물체의 진동수를 고유 진동수라고 한다. 물체는 여러 개의 고유 진동수를 가질 수 있으며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외력이 주기적으로 전달되어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공명현상이라고 한다. 이때의 진동수는 공명 진동수가 된다.
③	범의	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
④	추궁	잘못한 일에 대하여 엄하게 따져서 밝힘.
⑤	내지	앞 내용이거나 뒤 내용임을 선택적으로 나타낼 때 쓰여 두 어구를 이어 주는 말.
⑥	당위성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할 성질.
⑦	증거 능력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객관적인 자격.



메밀꽃 필 무렵

1

장면 01.

장을 거두는
허생원과 조선달.

여름 장이란 애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살이 벌여 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훤히 볶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때가 길거리에 궁싯거리고들 있으나, 석유 병이나 받고 고깃마리나 사면 죽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뚝뚝스럽게 날아드는 파리 떼도 장난꾼 각다귀들도 귀찮다. 얼금뱅이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선달을 나꾸어 보았다.

“그만 거둘까?”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 있었을까. 내일 대화장에서나 한몫 벌어야겠네.”

“오늘 밤은 밤을 새서 걸어야 될걸?”

“달이 뜨렀다?”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 날 산 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허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고 벌여 놓았던 물건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무명 필과 주단바리가 두 고리짝에 꽉 찼다. 명석 위에는 천 조각이 어수선하게 남았다.

다른 축들도 벌써 거진 전들을 걷고 있었다. 약빠르게 떠나는 패도 있었다. 어물 장수도, 땀장수도, 옛 장수도, 생강 장수도 꼴들이 보이지 않았다. 내일은 진부와 대화에 장이 선다. 축들은 그 어느 쪽으로든지 밤을 새워 육칠십 리 밤길을 타박거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장판은 잔치 뒤 마당같이 어수선하게 벌어지고, 술집에서는 싸움이 터져 있었다. 주정꾼 욕지거리에 섞여 계집의 앙칼진 목소리가 찢어졌다. 장날 저녁은 정해 놓고 계집의 고향소리로 시작되는 것이다.



장면 01 | 줄거리

▶ 여름장은 더워서 사람도 없다. 어차피 다 못 팔 것 같아서 해가 다 지지 않았음에도 장을 거두는 허생원과 조선달이다. 다음 장을 가려면 육칠십리 길을 걸어야 한다. 밤새 길을 걸어야 하는 허생원과 조선달이다. 한편, 짐을 다 챙긴 후 장의 풍경은 싸움이 터지고, 욕지거리가 들리는 등 아주 어수선하다.

2

장면 02.

충죽집에 간
허생원과 조선달,
허생원과 동이와의 갈등

“생원, 시침을 떼두 다 아네……. 충죽집 말이야.”

계집 목소리로 문득 생각난 듯이 조선달은 비죽이 웃는다.

“화중지병(畫中之餅)이지 연소패들을 적수로 하구야 대거리가 돼야 말이지.”

“그렇지도 않을걸. 축들이 사족을 못 쓰는 것두 사실은 사실이나, 아무리 그렇다군 해두 왜 그 동이 말일세. 감쪽같이 충죽집을 후린 눈치거든.”

“무어 그 애송이가? 물건 가지고 낚였나 부지.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그 길만은 알 수 있나…… 궁리 말구 가 보세나그려. 내 한턱 썬세.”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 않는 것을 쫓아갔다. 허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얼금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어 설 수도 없었으나, 계집 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충죽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뭇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충죽집 문을 들어서 술좌석에서 짜장 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된 서슬엔지 발끈 화가 나 버렸다. 상 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풀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쳐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누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동이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걱정두 팔자요 하는 듯이 반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결김에 따귀를 하나 갈겨 두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다. 동이도 화를 쓰고 팽하게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허생원은 조금도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는 다 지껄었다 — 어디서 좃어먹은 선머슴인지는 모르겠으나, 너에게도 아버 어머니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맘 좋겠다.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 다 무어야. 나가거라, 냉큼 풀 치워.

그러나 한 마디도 대거리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다. 아직도 서름서름한 사인테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섬찝해졌다. 주제도 넘지, 같은 술손님이면서도 아무리 젊다고 자식 나세 되는 것을 붙들고 치고 닦아 썰 것은 무어야. 원. 충죽집은 입술을 쭈긋하고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으나,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니 하고 그 자리는 조선달이 얼버무려 넘겼다. 너 녀석한테 반했지? 애송이를 빨면 죄 된다. 한참 법석을 친 후이다. 답도 생긴 데다가 웬일인지 흠뻑 취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허생원은 주는 술잔이면 거의 다 들이켰다. 거나 해짐을 따라 계집 생각보다도 동이의 뒷일이 한결같이 궁금해졌다. 내 꼴에 계집을 가로채서는 어떡할 작정이었누 하고 어리석은 꼬락서니를 모질게 책망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난 뒤인지 동이가 혈레벌떡거리며 황급히 부르러 왔을 때에는 마시던 잔을 그 자리에 던지고 정신없이 허덕이며 충죽집을 뛰어나간 것이었다.



장면 02 | 줄거리

- ▶ 허생원은 조선달에게 동이가 충죽집을 후렸다는 말을 듣는다. 허생원은 여자를 대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기에, 충죽집에 가자는 조선달의 권유가 탐탁치는 않지만, 조선달의 설득으로 충죽집에 간다.
- ▶ 동이가 술좌석에서 여자와 놀고 있는 것을 본 허생원은 대뜸 화를 낸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술마시면서 여자들과 노는 모습이 보기 싫었던 거다. 여자를 대하는 것이 서투른 자신에 비해, 아주 능숙한 동이가 싫은 것일 수도 있다.
- ▶ 동이도 화를 내긴 했지만 한 마디도 말대꾸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 허생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간 동이가 괜히 신경쓰인다. 술이 취하면 취할수록 동이가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허생원은 동이가 급하게 자신을 부르자 바로 뛰쳐나간다.

3

장면 03.

나귀를 못살게 구는
아이들과 허 생원의 갈등

“생원 당나귀가 바를 끊구 야단이에요.”

“각다귀들 장난이지 필연코.”

짐승도 짐승이려니와 동이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다. 뒤를 따라 장판을 달음질하려니 거슴츠레한 눈이 뜨거워질 것 같다.

“부락스런 녀석들이라 어찌는 수 있어야죠.”

“나귀를 몹시 구는 녀석들은 그냥 두지는 않는걸.”

반평생을 같이 지내 온 짐승이었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 다니는 동안에 이십 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까스리진 목 뒤 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라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썹을 흘렸다. 몽당비처럼 짧게 슬리운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 보아야 벌써 다리까지는 닿지 않았다. 닳아 없어진 굵을 몇 번이나 도려내고 새 철을 신겼는지 모른다. 굵은 벌써 더 자라나기는 틀렸고 닳아 버린 철 사이로는 피가 빼짓이 흘렀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였다.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겨한다.

어린이를 달래듯이 목덜미를 어루만져 주니 나귀는 코를 벌름거리고 입을 투르르거렸다. 콧물이 튀었다. 허 생원은 짐승 때문에 속도 무던히도 썩었다. 아이들의 장난이 심한 눈치여서 땀 뻘 몸뚱아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좀체 흥분이 식지 않는 모양이었다. 굴레가 벗어지고 안장도 떨어졌다. 요 몹쓸 자식들 하고 허 생원은 호령을 하였으나 패들은 벌써 줄행랑을 논 뒤요 몇 남지 않은 아이들이 호령에 놀라 비슬비슬 떨어졌다.

“우리들 장난이 아니우. 암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코흘리개 한 녀석이 멀리서 소리를 쳤다.

“고 녀석 말투가…….”

“김 침지 당나귀가 가버리니까 원통 흠을 차고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걸. 꼴이 우스워 우리는 보고만 있었다우. 배를 좀 보지.”

아이는 앵돌아진 투로 소리를 치며 깔깔 웃었다. 허 생원은 모르는 곁에 낮이 뜨거워졌다. 못 시선을 막으려고 그는 짐승의 배 앞을 가려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늙은 주제에 암새를 내는 셈이야. 저놈의 짐승이.”

아이의 웃음소리에 허 생원은 주춤하면서 기어코 견딜 수 없어 채찍을 들더니 아이를 쫓았다.

“쫓으려거든 쫓아 보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줄달음에 달아나는 각다귀에는 당하는 재주가 없었다.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도 후릴 수 없다. 그만 채찍을 던졌다. 술기도 돌아 몸이 유난스럽게 화끈거렸다.

“그만 떠나세. 녀석들과 어울리다가는 한이 없어. 장판의 각다귀들이란 어른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인걸.”

장면 03 | 줄거리

- ▷ 아이들이 나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고 동이가 허 생원을 부른 것이었다. 나귀도 나귀이지만, 허 생원은 아까 같은 일이 있고도 자신의 나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알려주려 와 준 동이에게 감동을 받는다. ‘눈이 뜨거워질 것 같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 ▷ 허 생원은 나귀에 대한 애착이 깊다. 함께 장에서 장으로 반평생을 함께 다닌 ‘친구’인 것이다. 오랫동안 함께 지낸 만큼 정이 들 수밖에 없다. 나귀는 허 생원을 보고 반겨한다.
- ▷ 아이들의 장난이 심했는지 나귀의 흥분이 식지를 않는다. 아이들은 이미 도망쳤고, 남은 아이들은 허 생원의 호령을 듣고 나귀에게서 멀어진다.
- ▷ 그런데 사실 아이들은 나귀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허 생원의 나귀는 ‘수컷’인데, ‘암컷’을 보고 자기 스스로 흥분했던 거다. 오해를 했던 허 생원은 낮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놀리는 아이들에게 화가 난다.
- ▷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허 생원은 채찍을 들고 아이들을 쫓아가지만, 아이들을 쫓아갈 능력이 되지 않는다. 결국 채찍을 내던진다.



조 선달과 동이는 각각 제 나귀에 안장을 엮고 짐을 싣기 시작하였다. 해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이었다.

드림전 장돌이를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허생원은 봉평장을 빼놓은 적은 드물었다. 충주 제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매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 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닳새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날 동안이나 뚜벅뚜벅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반 가까웠을 때, 거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박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건만 허생원은 변치 않고 언제든지 가슴이 뛰놀았다.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 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 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끊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 아미타불로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빛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염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 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두 도무지 알 수 없어.”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침을 때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께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콩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멧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짓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팡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이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져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력저력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연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잖나. 하나 처녀의 꼴은 꿩귀 먹은 자리야.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함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나지……. 그러나 늘그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러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 장면 04 | 줄거리 ◀

- ▶ 허 생원, 조 선달, 동이는 다음 장으로 출발한다. 20년 간 장에서 장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던 허 생원이지만, '봉평'은 거의 빼놓지 않고 간다고 한다.
- ▶ 허 생원의 원래 고향은 '청주'이지만, 허 생원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고향은 '장과 장 사이의 길'이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강산' 자체가 허 생원의 고향인 것이다. 장과 장을 돌아다니는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 ▶ 허 생원의 젊은 시절의 회상이 등장한다. 알뜰하게 저축한 적도 있지만, 도박 등으로 탕진해 버렸던 허 생원이다. 그래도 나귀는 팔지 않는다. 여기서도 나귀에 대한 애정이 보인다. 그렇게 다시 장을 도는 삶으로 돌아 온다.
- ▶ 여기서 '꼭 한 번의 첫 일'에 대한 회상이 나온다. 조 선달은 몇 번이고 들어서 지겨워 한다. 그래도 잘 들어준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 주변 풍경과 함께 아주 아름다운 분위기가 묘사된다. 아름다운 달빛, 고요한 주위, 달빛에 젖은 곡식,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메밀꽃의 향, 아름다움. 세밀한 묘사로 주변 풍경의 분위기가 드러난다.
- ▶ 그렇게 허 생원의 이야기는 시작한다. 허 생원, 조 선달, 동이 순서로 일렬로 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허 생원의 이야기는 동이에게 들리지 않는다. 꼭 오늘같이 '메밀꽃 필 무렵'의 밤에, 더위로 잠들지 못한 허 생원은 밖으로 나온다. 개울가에서 목욕이나 하려고 나온 허 생원은 달빛이 너무 밝아 밖에 옷을 벗어놓기 그랬던지, 옷을 벗어놓으러 방앗간에 들어간다. 허 생원은 그곳에서 성 서방네 딸과 마주친다.
- ▶ 집안이 어려워져서, 그 걱정에 울고 있던 성 서방네 딸의 이야기를 해주며 둘은 정을 쌓는다.
- ▶ 하지만 다음 번에 '봉평'에 갔을 때, 성 서방네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 서방네 딸을 찾으려고 수소문도 하고, 제천 장판을 뒤졌지만 찾지 못한다. 허 생원은 봉평에서의 이 추억 때문에 매년 봉평에 들르는 거다. 이 아름다운 추억을 잊을 수 없어서.
- ▶ 얘기를 들던 조 선달은, 자신은 가을까지만 하고 이런 생활을 그만둔다고 말하고, 허 생원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 한다. '장돌이'라는 직업에 대한 애정이 보이는 부분이다.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툇어졌다. 콩무늬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총각두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렸다. 총각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설게 생각 맡게.”

“저,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 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해한 끝이라 동이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버미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붙이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들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예요. 제천 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 와요.”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다. 둔덕은 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여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나귀는 건똥하면 미끄러졌다. 허 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동이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쪽 씻어 내렸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러 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의를 벗어 띠로 등에 얹어매고 반 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런 꼴로 물속에 뛰어 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 물은 뼈를 찢었다.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구?”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 가서 술장수를 시작했죠. 술이 고주래서 의부라고 전망나니예요.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룬들 편할 날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차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곤 하니 집 꼴이 무어겠소. 열여덟살 때 집을 뛰어나와서부터 이 짓이죠.”

총각 나썰론 섬이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센데다가 발에 채는 돌맹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흘칠 듯하였다. 나귀와 조 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 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모친의 친절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비 성은 무엇이구?”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 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디었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 버렸다. 허비적거릴수록 몸을 견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펴으나 흘렀었다. 옷째 졸짝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해깝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윈 몸이라 장정 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친은 아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 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별면 이력저력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렸다?”

동이의 탐탁한 등허리가 뼈에 사무쳐 따듯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업혔으면도 하였다.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

조 선달은 바라보며 기어코 웃음이 터졌다.

“나귀야.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다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 일세.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치울 쟈 판은 대단한 나귀 새끼군.”

허 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등실등실 가벼웠다.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훗훗이 쉬어. 나귀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 장면 05 | 줄거리 ◀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득시니같이 눈이 어둡던 허 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걸음도 해깝고 방울 소리가 밤 별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 ▶ 길이 좁아서 일렬로 가던 일행이, 길이 넓어지면서 다시 가로로 늘어선다. 그렇게 동이와의 대화가 시작된다.
- ▶ 동이의 가족사가 나온다. 아버지는 애초부터 없었고, 어머니만 있다. 어머니는 제천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집안에서 쫓겨났다. 아버지가 없으니 ‘미혼’인 것이다. 그 당시 가부장적인 시대에, 집안의 망신이라는 이유로 쫓겨난 것이다.
- ▶ 고개가 나오고 힘들어서 그런지 얘기가 끊긴다. 고개를 넘어서는 바로 개울이 나온다. 장마에 끊긴 다리가 아직 보수되지 않아 옷을 벗고 개울을 건넌다. 개울을 건너며 계속해서 동이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 ▶ 어머니가 새롭게 만난 남자는 술주정뱅이이라, 술만 마시면 동이와 동이의 어머니를 때린다. 18살이 되어서는 참다 못해 어머니와 함께 집을 뛰쳐나온다.
- ▶ 물살이 세 동이는 허 생원을 붙들고, 이 때문에 조 선달과 두 명은 멀어지게 된다.
- ▶ 동이 어머니의 친정은 봉평이고, 아버 성은 모른다. 이야기를 들은 허 생원은 물에 빠진다. (소설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동이 어머니의 고향이 ‘봉평’이라는 얘기를 듣고 당황한 거다. 아버지가 혹시 자신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 ▶ 결국 물에 빠진 허 생원을 동이가 업고 나온다. 동이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고, 동이는 가을에 어머니를 봉평에 모셔오려 한다.
- ▶ 동이의 어머니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허 생원은 동이의 등허리의 따뜻함이 아주 좋다. 물에 젖은 옷을 갈아입고, 조 선달 · 동이와 함께 제천으로 갈 계획을 세운다.
- ▶ 주막으로 가는 길에 동이가 자신과 같은 ‘왼손잡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소설은 끝이 난다.

▶ 주제 ◀

떠돌이 삶의 애환과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

▶ 해제 ◀

이 작품은 일생을 길 위에서 살아가는 장돌뱅이의 삶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삶의 애환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이다. 특히 이 작품은 토속적인 어휘 구사와 서정적이고도 낭만적인 묘사로 한국 근대 소설의 백미로 평가된다.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달밤의 산길을 배경으로 혈육의 관계를 조금씩 확인해 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동일한 시·공간적 배경을 매개로 치밀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통해 떠돌이 삶의 애환과 혈육의 정을 낭만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전체 줄거리 ◀

왼손잡이 장돌뱅이 허 생원은 과거 어느 여름 달밤에 우연히 하룻밤 정을 나누고 헤어진 성 서방네 처녀를 잊지 못해 봉평 장을 거르지 않고 찾는다. 장판을 일찍 끝내고 주막을 찾았다가 젊은 장돌뱅이인 동이가 총쫓집과 수작하는 것을 보고는 심하게 나무라고 따귀까지 때린다. 그날 밤, 다음 장이 서는 대화까지 허 생원은 동업자인 조 선달과 함께 밤길을 걸으면서 성 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기막힌 인연을 또다시 들려준다. 이들과 일행이 되어 대화 장까지 같이 가던 동이에게 낯의 일을 사과하던 허 생원이 동이의 집안 사정을 듣다가, 사생아를 낳고 쫓겨났다는 동이의 모친이 바로 성 서방네 처녀임을 짐작한다. 이에 허 생원은 대화 장이 끝나면 동이의 모친이 산다는 제천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혈육의 정을 느끼며 동이를 바라보던 허 생원은 동이가 자기처럼 왼손잡이인 것도 확인한다.

▶ 확인문제 ◀

- Q1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O X
- Q2 토속적인 어휘를 활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다. O X
- Q3 주변 풍경의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O X
- Q4 ‘허 생원’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귀’에 대한 애착을 엿볼 수 있다. O X
- Q5 허 생원, 조 선달, 동이의 자리 변화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O X
- Q6 등장 인물들의 내력과 신체적 특징을 통해 동이의 출생과 허 생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O X
- Q7 허 생원과 조 선달은 모두 죽을 때까지 ‘장돌이’ 일을 계속하고자 한다. O X
- Q8 ‘총쫓집’에서의 일을 통해 허 생원과 동이의 성격 차이가 드러난다. O X